

전주대사습놀이 명성 되찾는다

전주시, 23일 대토론회서 대회 운영방식·심사제도 등 재도약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내홍을 겪어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의 명성과 권위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의 재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대사습놀이 관계자와 학계, 언론인,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발전방안과 심사제도 개선 등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부 발제 시간에는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그동안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상 지적받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는 최동현 군산대학교 교수의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손태도 한국판소리학회 부회장의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운영방식 개선방향', 이희병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의 '심사제도 개선안 제안', 황일복 전주MBC 편성제작국장의 '청중평가제도 도입 운영에 대한 실무적 견해' 주제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발제된 주제들에 대해 시의원과 국악인, 언론인, 대사습놀이 보존회 관계자, 이전 전국대회 경연참가자, 심사위원 등 다양한 토론자들이 참여해 전국대회 혁신을 위한 생생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통계분석 전문가를 토론자로 참여시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중평가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전주시는 이번 대토론회에 이어 이달 말 조직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

하고,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대회 혁신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준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혁신안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취소된 판소리명창부 대통령상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전국대회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라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둘러싼 다름과 양극을 접고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열린시민강좌 개최

'제16회 전주 열린시민강좌'가 500여명의 전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초창강의에는 대한민국 여성유머감사 1호로 활동하며, 전국의 관공서, 대학, 기업 등에서 유머감사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박인옥 유머플러스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를 주제로 유머의 중요성에 대해 열강을 펼치며 시민들을 웃기고 울리며 감동시키는 유익한 시간으로 안무했다.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중화산2동 주민자치센터 툽타동아리 하루리의 맑고 고운 음색으로 나는 행복한 사랑, 젊은연인들, 안동여 등의 문화공연을 펼쳤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조준모 MC(교통방송)의 진행으로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인재용 기자

화산지구대, 베스트 순찰팀 선정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형수) 화산지구대는 월별 성과가 우수한 순찰팀을 선정하는 베스트 순찰팀 선발에서 이번달까지 총 5회에 선정된 영광을 누렸다.

최초 1월 12일 선정된 후 2월·3월 연이어 1위로 선정되었고, 전북청 1/4분기 1급지 베스트 순찰팀 선정, 그리고 5월중 1위로 선정되어 13일 강형수 완산경찰서장이 화산지구대를 방문해 화산지구대 4팀에게 지난달 베스트순찰팀 인증서 및 정액인 경위, 김종남 경사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2017 전주 통장한마음대회'가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 의원 등 주요내빈과 강동 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통장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전주 1300여 통장들, 시 발전·화합 결의

통장한마음대회 개최... 우수봉사자 표창도 수여

전주시 1,300여 통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주 발전을 위한 노력과 회원 간 화합을 다짐했다.

전주시 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전주시 통장한마음대회'가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주요내빈과 강동 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통장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의 힘, 나는 전주시 통장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전주발전의 주역으로써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퓨전 타악 그룹 아류의 화려한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대회는 개회식과 우수봉사자 표창, 사람의 쌀 나눔 행사, 대동한마당 퍼포먼스, 우수봉사자 사제발표, 한마음대동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평소 전주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우수봉사자 등 5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봉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통장연합회는 이날 사람의 쌀 800kg(10kgx80포)을 마련, 동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진행해 이웃사랑도 실천했다.

강동 전주시 통장연합회장은 "전주시를 위해 노력하는 통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시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며 "전주시를 위해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곳에서 전 주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AI 확산방지 위해 행정력 집중

전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A가 발생한 용정동 소재의 관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중인 닭 38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소(용정동 발생농가)를 설치하는 등 AI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나섰다. 또한 상덕동 이작마을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근무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를 대상으로 수매·도매를 추진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AI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닭집 및 가든형식당 등에 살이있는 닭의 유통이 금지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산닭집, 가든형식당 등에 대한 유통금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시장 4개소에 살이있는 닭 매매금지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개발청, '만사열공' 토론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만사열공(萬事熱工)'이라는 도시락 토론회(브라운 백 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융합교통기술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소장을 초청해 '미래 신교통의 시범 공간'으로서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문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망은 현재의 2차원적 도로망이 아닌 육해공이 연계되고 고도별 유형별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신기술이 운행되는 3차원적 교통망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의 지형적 기반(광활한 부지와 호소 등)과 산업 기반(상용차

및 해양·항공기업 집적, 탄소 소재 산단 인접 등), 제도 기반(무규제 특구 지향, 백지상태로 새로운 도시 설계 가능)을 3차원 신(新)교통을 위한 최적의 요건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상용차 자율주행 분야와 유인 중앙 무인항공기(드론) 등 새만금의 강점 분야를 특화하고 3차원 도로망(무인항공기 전용 도로망 등 포함), 실험 평가 기반시설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새만금은 3차원 신(新)교통 시범 특구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김형렬 차장은 "새만금이 하늘과 도로, 해상의 범주를 넘나드는 미래 신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안정적 노인일자리 창출 앞장

전주 노인취업지원센터, 에프엠마트·제이휴비앤비와 협약

전주시가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 등 단기 고용 중심의 노인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일 일자리를 창출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로 했다.

13일 전주시는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와 에프엠마트, (유)제이휴비앤비와 전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전주시가 거주하는 노인이 함께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어르신들을 고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 임금의 50%(월 최대 45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 9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 3개월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능력과 일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초고령시대에 부응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륜을 살리고 전주시민의 특색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기업과 지역어르신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